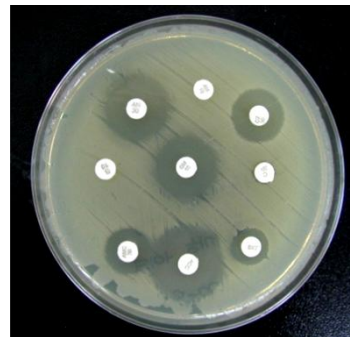


2008년~2010년 분리된 흉막폐렴의 원인균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의 항생제 내성 경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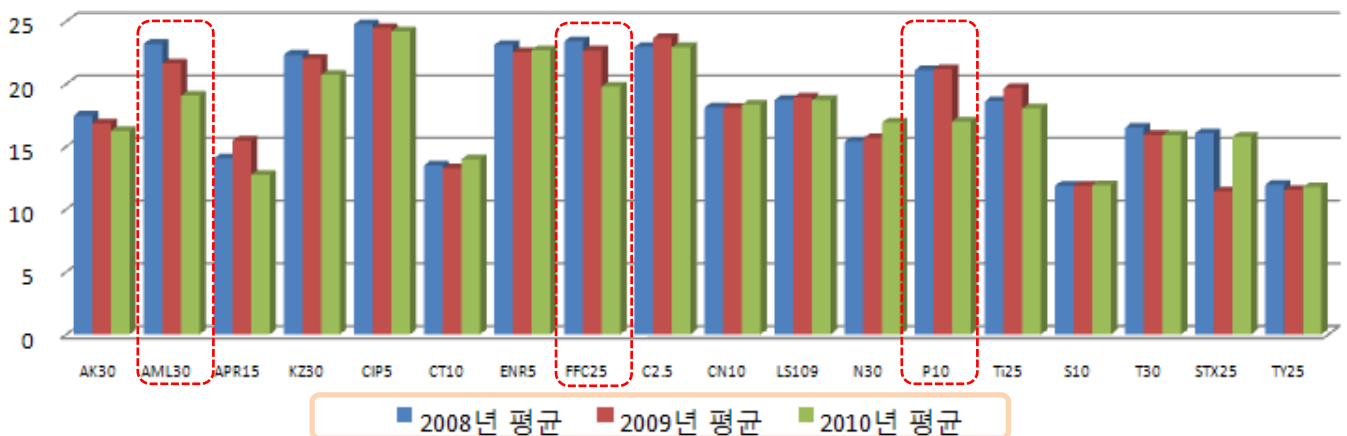
1 항생제 내성 검사 항목 (약제 18종)

약제명(그래프 표기약자)	검사수(연도별)			
	2008	2009	2010	합계
Amikacin(AK30)	75	73	51	199
Amoxicillin(AML30)	86	73	51	210
Apramycin(APR15)	66	73	51	190
Cefazolin(KZ30)	86	73	51	210
Ciprofloxacin(CIP5)	86	73	51	210
Colistin(CT10)	77	73	51	201
Enrofloxacin(ENR5)	77	73	51	201
Florphenicol(FFC25)	86	73	51	210
Ceftiofur sodium(C2.5)	75	73	51	199
Gentamycin(CN10)	75	73	51	199
Linsmycin(LS109)	86	73	51	210
Neomycin(N30)	86	73	51	210
Penicillin G(P10)	75	73	51	199
Tiamulin H.Fumarate(Ti25)	75	73	51	199
Streptomycin(S10)	75	73	51	199
Tetracycline(T30)	75	73	51	199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STX25)	86	73	51	210
Tylosin tartrate(Ty25)	75	73	51	199

- ✓ 2008~2010년까지 약제 18종으로 흉막폐렴의 원인균인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균의 항생제 내성 검사를 진행하였음.
- ✓ 2008년 약제별로 66~86회, 2009년 73회, 2010년 51회로 3년간 총 190회~210회의 검사가 진행되었음.
- ✓ 검사는 항생제 디스크 검사법으로 진행되었고, 눈금자로 발육 억제대의 직경을 측정.
- ✓ 검사에 사용된 배지는 PPLO+NAD (37°C 24 시간 배양)



2 2008년~2010년 APP 균의 항생제 내성 검사 결과



- ✓ Amoxicillin, Florphenicol, Penicillin G의 경우 수치의 하락세가 뚜렷하여, 해당 항생제에 대한 내성 인자를 획득한 세균의 감염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됨.
- ✓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serotype 1) 균의 경우 다른 혈청형에 비해 높은 내성률을 보이므로 정확한 감염 확인 및 항생제 내성 검사가 필요할 것임.